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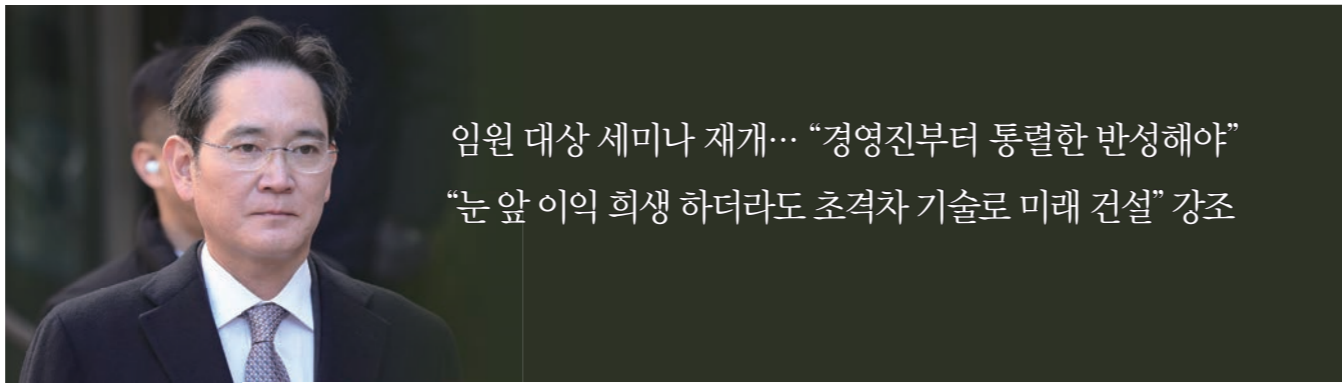
“사측생 각오로 위기 대처”... 삼성 고베 죄는 이재용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임원들에게 ‘사측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질책성 메시지를 공유했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벗고 나서 임원 대상 세미나를 재개하며 향후 삼성그룹 경영에 이 회장의 비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삼성전자는 2월 말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운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고(故) 이병철 창업 회장과 고 이진희 선대 회장 등 언니 일가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재용 회장의 기존 발언과 함께 올해 초 신년 메시지로 내놓으려고



임원 대상 세미나 재개... “경영진부터 통렬한 반성해야” “눈 앞 이익 희생 하더라도 초격차 기술로 미래 건설” 강조

했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상이 이 회장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영상을 통해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를 강조

하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회장은 “기술 중시와 선행 주자의 전통을 이어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며 “첫 번째도 기술이고 두 번째도 기술이고 세 번째도 기술이다”며 기술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삼성의 위기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으며 상대적인 등수보다는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내부 리더십 교육 등에 이어 세부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위기 대처와 리더십 강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 각자의 이름

과 함께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고 새겨진 크리스탈 패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이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삼성은 앞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임원 대상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전 계열사 임원 세미나를 재개한 시점이 이 회장이 불법 승계 관련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한 달 뒤라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

3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적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벗고 본격적으로 경영에 복귀한다는 신호가 나오며 이재용 회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하나은행이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에 선정됐다. 하나은행

하나, 최우수무역금융銀

美 ‘글로벌 파이낸스’ 선정

하나은행이 글로벌 파이낸스사로부터 무역금융 전문 은행으로써의 역할을 인정받았다.

하나은행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가 선정하는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 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수상으로 글로벌파이낸스사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을 통산 24회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무역금융 분야의 시장 지배력과 상품서비스 품질기술력 등 고른 부문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였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글로벌파이낸스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하나은행이 무역금융 거래 규모·고객서비스·가객경쟁력·혁신 기술도입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혁신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을 통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글로벌 무역금융 역량이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입증한 결과”라며 “수출입 업무의 디지털화·블록체인 도입·AI 기반 솔루션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수출입 업체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작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400억 원을 출연한데 이어 올해 추가로 300억 원을 특별출연한 2차 수출패키지 우대 금융을 통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고효율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럽 공조 시장 공략

냉난방공조전시회 'ISH 2025'

삼성전자, EHS 모노 R290 등 선배 LG전자는 ‘씨마브이 R290’ 전면에

17일부터 21일(현지시간)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냉난방공조(HVAC) 전시회 'ISH 2025'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층 발전된 냉난방공조 시스템을 선보이며 유럽 공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17일 ISH 2025에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 ‘슬림핏 클라이밋허브’와 ‘EHS 모노 R290’ 등 친환경 고효율 히트펌프(EHS) 제품과 올해 초 출시한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벽걸이형 에어컨 신제품 등을 선보인다.

슬림핏 클라이밋허브는 200L 전용 물탱크가 탑재된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이다. EHS 모노 R290도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 EHS 제품으로 자연냉매인 R290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강력한 성능으로 난방을 위한 최대 75도의 고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에어컨 신제품은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무풍 기능에 섬세한 습도 센싱-제어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



삼성전자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냉난방공조전시회 'ISH 2025'에서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히트펌프 ‘슬림핏 클라이밋허브’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다. 새롭게 탑재된 쾌적제습 기능은 습도를 낮추기 위해 온도를 급격하게 낮추는 기존 제품과 달리 실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며 제습하기 때문에 한층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삼성전자 전시장에는 기기 간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통한 연결 편리성을 소개하는 전시 코너도 마련됐다. 또한 호 텔·소매점 등 다양한 상업용 공간을 위한 스마트한 냉난방 에너지 관리 솔루션과 B2B(기업 간 거래) 전용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 프로와 빌딩 통합 솔루션

bIoT 라이트모도 확인할 수 있다. LG전자 또한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을 비롯한 유럽 고객 맞춤형 HVAC 솔루션으로 유럽 공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혁신적 난방의 개척자’를 슬로건으로 주거용부터 상업용까지 유럽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고효율 히트펌프를 앞세워 현지 공조 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의 대표적인 주거용 히트펌프는 ‘씨마브이’다. 이 제품은 외부 공기에서 얻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실내 냉난방



LG전자가 'ISH 2025'에서 자연냉매(R290)를 적용한 히트펌프 ‘씨마브이 R290 모노블록’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총 492㎡ 규모의 전시 부스를 조성했다. LG전자

및 온수를 공급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다. 화석 연료를 태운 열로 난방하는 기존 보일러에 비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고효율 인버터 스크롤 컴프레서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도 우수하다.

씨마브이 R290 모노블록은 유럽 단독주택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중소형부터 대용량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다. 지구 온난화지수(GWP)가 3에 불과한 자연냉매(R290)를 적용해 유럽 ErP 에너지 등급 중 가장 높은 A+++를 충족한다.

블랙톤의 색상에 콤팩트한 크기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세계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 ‘IDEA’에서 동상을 받으며 디자인 경쟁력도 입증했다.

LG전자는 다세대 주택을 위한 고효율 히트펌프 씨마브이 모노블록 G도 함께 전시해 주거 형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상업용 솔루션으로는 기존 냉매보다 GWP가 30% 수준인 R32 냉매를 적용한 ‘인버터 스크롤 칠러’와 ‘멀티브이 아이’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대동택견 선수자 과정 1기 모집 안내

1. 택견 어원

택견의 어원은 태갈이다. <태>는 '태어나다·중생하다'는 뜻이고, <갈>은 '가르치다·수련하다'는 뜻으로 이를 합치면 '인간에서 신으로 중생하는 수련'을 말한다. 씨름이 오랜 세월 동안 씨갈 → 씨가름 → 씨겨름 → 씨름으로의 용어 변천사가 있었듯이 택견도 태갈 → 태가름 → 태겨름 → 태견(태견) → 택견으로의 용어 변천사가 있었다.

2. 대동택견 소개

- 태고사에 나오는 천제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하도록 준 천부인(天符印) 원리에 입각한 고유 무예(위대 택견 기능)
- 무예 역사와 전승 계보(삼성조 시대 - 북부여 - 삼국시대 - 일본 천황가 전래 - 신라삼랑 원의광(대동 택견 중시조) - 원정의(35대) - 덕암 최용술(36대) 환기분주 - 한풀 김정윤(37대)) 명확한 전통 무예
- 한민족 정서에 녹아드는 우아하고 수려한 몸짓과 가장 방대하고 강력한 기술 체계를 갖춘 완전 무예(아래대 택견 기능)

3. 선수자 과정 개설 목적

- 단군 임검의 세상을 널리 아름게 하라는 홍익인간 이념 실천
- 삼성조 시대부터 7세기까지 수련한 전통 태갈 수련법(위대 택견) 전수- 단군 임검 탄생역사에 나오는 환웅(桓雄)·웅녀(熊女)·신단수(神檀樹)·호(虎)·웅(熊)·애(艾)·신(森)·굴(窟)·백일(百日)은 인간이 신으로 중생하는 태갈 수련법이나 후대에 한자로 기록되면서 인수(人獸)의 역사로 왜곡됨
- 조선시대 송문천무(崇文殿) 정책과 일제의 민족혼 말살 정책으로 사라진 택견의 맨몸 기술 보강과 무기술 복원(아래대 택견)

4. 선수자 과정 모집 일정

- 주 최: 대동택견협회(협회장 신성준)·명지대 명상무예학과(우종용 교수)
- 장 소: 명지대학교 미래관 6층
- 일 자: 2025.3.29.~6.14(12주) 매주 토요일 09:00~12:50
- 인 원: 선착순 10명
- 대 상: 체력훈련(힘)이 아닌 무예기법(기운) 원리를 익히는 수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 등 록: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 미래교육원 → 등록안내 → 전문교육과정 → 신규학습자 (원서접수 바로가기)
- 문 의: (02) 300-1816